

겨울철 절기와 기상

김 우 탁
<기상정보센터 소장>



● 대설 - 아직은 이른 호설

대설은 문자 그대로 큰 눈이 내린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로서는 12월 중순까지는 산악지방을 제외하고 큰 눈이 내리는 예가 펴 드문 것으로 돼 있다.

추위의 경과로 보아서 예로부터 「소설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는 말도 있고 또 기록상으로도 남아 있지만, 대설 추위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까닭은 소설은 아직 겨울에 대비하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시기라서 체감온도상의 추위가 크게 느껴지는데 비해 대설에는 우리의 몸이 냉기에 다소 익숙해져 있는 데다, 옷차림도 완전히 겨울에 들

어 있고, 게다가 이무렵의 기후는 소춘(小春)이라고 해서 초겨울속의 따뜻한 날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간 지방은 이 무렵부터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스키가 본격적인 시즌으로 접어든다.

● 동지 - 태양이 부활하는 날

동지는 태양이 천문학상 동짓점에 이르고, 지구상에서 볼때는 우리와 가장 먼 거리인 남회귀선에 도달하는 날이다.

그래서 중위도에서는 낮시간이 불과 9시간 34분에 지나지 않고, 밤의 길이는 무려 14시간 26분이 나 돼 밤이 낮보다 약 3분의 1가량이나 더 길다. 따라서 일사량도 일년중 가장 적은 시기가 되는데,

이치로 따지면 이때가 일년중 가장 추워야 하는 계절이지만 실제의 추위는 이보다 약 20일 가량 늦어 진다.

이것은 하루의 최저기온이 밤중에 나타나지 않고 해뜨기 직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지열이 아직도 덜 식었기 때문이다.

동지를 기해 침몰했던 태양은 다시 활기를 띠고 소생하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이날이면 「일양 래도(一陽來到)」라는 말을 썼으며 북유럽에서는 태양이 죽지 않고 부활하는 날이라 일컬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서양에서는 이 날을 축제일로 삼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동지가 설이었다.

기후학상으로는 이때를 전후해 이른바 동지 한파라는 이름의 추위가 몰려 온다.

● 소한-앞으로 약 20여일이 혹한기

일년 중 가장 추운 시기로 접어드는 것을 예고하는 절기다. 이제부터 중부지방에는 영하 10도를 말도는 강추위가 몰려오고, 남부 지방에서도 영하 5~8도 까지 수은주가 내려간다.

반드시 「소한 땀」을 해서가 아니라 이때를 전후 해서는 한차례 한파가 밀려 오기 마련이며 이때의 한파가 왕왕 극기온(極氣溫-

일년중 가장 낮은 기온) 을 기록 하기도 한다.

흔히 「대한이 소한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느니 「소한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느니 하는 속담도, 이를 테면 소한 추위를 강조한 얘기로 해석된다.

정초부터 입춘 무렵까지의 평균 기온의 일변화(서울의 경우) 를 보면 약 한달 동안에 3차례 기온이 곤두박질 치는 경향을 보이는데, 1월 5일과, 1월 16일, 2월 1일을 전후한 시기가 여기 해당된다.

아뭏튼 앞으로 약 한달간은 휴한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대한 - 기온은 오르막길로

대한이라는 어감에서 추위가 더해지는 것 같은 계절이다. 흔히들 「소한 보다 추운 대한 없다」 고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소한과 대한이 지나면 이젠 추위도 모두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입춘 한파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보면 이 역시 성급한 생각이 될 것 같다.

지난 80년 동안(1908~1987년)의 저극기온(低極氣溫) 이 나타난 것을 조사해보면, 대한 이후에 나타난 경우가 26회로 3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2월에 저극 기온이 나타난 경우가 12번이

나 있었다.

그러나 기후표에 따르면 대한이 지나면서 부터는 그동안 영하에서 헤매던 일평균 최고 기온이 비로소 영상으로 오르게 된다.

● 입춘 - 여한이란 이름의 추위

농사를 위주로 하는 동양에서는 입춘 이후를 봄으로 셈했다. 그래서 그런지 세시기 에서도 입춘 이후의 추위를 여한(餘寒) 이라 부른다. 이것은 입춘 이후의 더위를 잔서(殘暑) 라고 하는 것에 상응되는 말이라 하겠다.

그런데 중부지방의 기후로는 말이 여한이지 실제로는 엄동기의 추위보다 더 심할 때도 많다. 우리나라 기후표를 보면 중부 내륙 지방은 여태까지 가장 낮았던 기온이 입춘 이후에 나타난 곳이 많고, 서울지방의 경우도 2월 9일에 영하19.6도까지 내려간 기록이 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추위라든가 주위의 생활 환경은 어제와 다름이 없으나 입춘이라는 어휘에서 오는 계절감과 나날이 밝아져가는 하늘 상태 등에서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봄의 분위기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 이 계절이 갖는 의미가 된다.

일상 생활과 레크리에이션을 위주로 하는 서양에서는 계절을 구분할 때 춘분(3월 이후를 봄)이라고 셈한다. 어느 기후학자는 계절

구분이 다른 것으로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느낄수 있다고 했다.

● 우수 - 봄은 와도 봄답지 않다.

이름 그대로 라면 눈이 차츰 비로 바뀌면서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는 계절이다. 그러나 실제의 기후는 아직도 차디찬 바람결이 바늘끝 같고 눈이 길로 쌓이게 내리기도 해서 도무지 봄의 깃새를 느낄수 없을 때가 많다.

이날이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고 했으나 한강의 얼음이 그대로 두껍게 깔려 있기도 한다. 눈으로 보기에는 봄이라기 보다 겨울 풍경 그대로인데 어쩐지 우수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기다리던 봄이 성큼 다가선 듯한 심사를 느끼게 하는 것 만은 분명한 것 같다.

기후표를 보면 중부지방은 이때부터 큰 눈이 내릴 염려가 많은 시기며, 눈 대신 비가 될 확률은 아직도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부지방은 50% 가량 된다.

그리고 아무렴 부터는 날씨가 풀리기로 들면 중부에서도 하룻 사이에 낮기온이 10도 전후로 치솟기 때문에 이 무렵은 경향을 막론 하고 해동(解凍) 에 따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축대와 벼랑이 무너진다는가 산사태와 낙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대개 이 무렵의 일이다. ☞